



광주환경공단, '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 획득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공단 본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관 중, 재난 발생 시 핵심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번 인증은 광주환경공단이 그간 추진해 온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공단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위험 요소 개선, 직원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왔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남부경찰, 남구 주민 대상 공로자 포상금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이 지난 19일 112신고로 통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남부럽주' 112 신고 공로자 포상금 수여식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날 수여식은 남구 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마련됐다.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김 모씨는 남구 한 무인점포 인근에서 다량의 물건을 담아 이동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고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무인점포에서 다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해 검거했다.

또한 같은 날 새벽 시간, 기저귀만 착용한 채 혼자 산책로를 돌아다니던 3살 유아를 발견한 이 모씨, 금감원 사칭 전화를 받고 우는 시민을 목격하고 즉각 신고해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홍 모씨 등 3명을 공로자로 선발했다.

이정준 기자



청년일자리센터 용봉, 청년 구직활성화 협약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은 지난 15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자활센터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북구의 지원을 받아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식은 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와 광주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가 참석했고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센터 3개소와 상호협력과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광주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 안내 및 구직 단념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대한적십자사 광전지사, 고려인 마을 후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5일 광주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 광장에서 희망풍차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파스 및 영양제와 라면, 즉석밥, 참치캔 등 즉석식품 위주의 간편식 세트와 각각 SK케미칼㈜과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해당 물품은 고려인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광주 지역 내 고려인동포 23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에 감사하다"며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재성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고려아연과 SK케미칼㈜의 나눔 실천이 있었기에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진보공단 광주본부, 클린청구 강화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클린청구 강화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20일 진보공단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부당유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토론을 실시, 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해당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공단과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장기요양기관도 올바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스로 점검하는 자정노력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영희 지역 본부장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공급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장기요양기관도 클린청구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체육회, 백제홍삼(주)과 체육인·지역 발전 협약

전라남도체육회가 지역 체육인의 건강 증진과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해 백제홍삼(주)과 손을 맞잡았다. (사진)

전남체육회는 지난 19일 오전 전남체육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백제홍삼(주)(회장 조성정)과 공식 음료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을 비롯해 체육회 임직원과 백제홍삼(주)이광자 전무이사, 정귀섭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백제홍삼(주)는 향후 2년간 전남체육회의 공식 음료 후원사로 참여한다. 후원 품목은 자사 제품인 '삼대인 홍삼볼(245ml × 24캔)'이며, 72박스 이상 주문 시 동일 수량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조건이다.

전남체육회는 후원받은 음료를 도내

각종 체육대회, 직장운동경기부, 시·군 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공급할 예정으로, 체육인의 체력 회복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백제홍삼 브랜드의 홍보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전남 체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민간 기업과의 지속적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후원이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자 백제홍삼(주) 전무이사는 "전남 체육 발전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지속적인 후원과 마케팅 연계를 통해 스포츠와 건강이 함께 가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밝은안과21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4회 연속 획득

밝은안과21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연속 획득했다.

20일 밝은안과21병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4년 주기로 시행되며, 인증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밝은안과21병원은 4주기 인증을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조사단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고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총 4개 영역, 507

개 항목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밝은안과21병원은 지난 4월11일부터 2029년 4월10일까지 4주기 인증 의료기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1주기, 2017년 2주기, 2021년 3주기에 이어 4회 연속 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및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갖춘 안과 전문병원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밝은안과21병원 김주엽(사진) 대표원장은 "이번 4주기 인증 획득은 전 직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만들고 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밝은안과21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9년 만에 돌아오는 닉·주디... '주토피아 2' 11월 개봉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2'가 오는 11월 개봉한다고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20일 밝혔다. (포스티)

2016년 개봉한 '주토피아' 이후 약 9년 만에 나오는 속편으로, 토끼 경찰관 주디와 여우 사기꾼 닉이 동물들의 도시인 주토피아 시티를 발각 뒤집어 놓은 미스터리한 파충류를 추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닉과 주디의 목소리 연기는 1편에 이어 지니퍼 굿윈과 제이슨 베이트먼이 각각 맡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게리 역은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2022)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을 받은 키 호이 완이 소화한다. 사건의 열쇠를 쥔 푸른 뱀으로, 푸른 뱀의 해(을사년)인 2025년을 기



념해 만들어진 캐릭터다. 연출은 1편에서 메가폰을 잡았던 바버라 리와 각본을 쓴 제러드 부시가 함께 했다. 부시는 이번 영화에서도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연합뉴스